

지 상 범 석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

滂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④

반능조삼육덕 회적도명
疏釋精神 喧止絕
온소정신 환효지절

辭現決志被罰 意欲等經何所
사헌결지피치 의욕등초하소
曉夕想訂 覺過惡延過時
효석사흔 기과천연과사
心期佛法法良 用行後來龜鏡
심기법법동량 용작후래구경
常以如此 未能少分相應
상이여차 미능소분상응
出言 發跡於典章 談說 乃辨於檀古
출언 수설이전장 담설 내방어게고
形迹特 懸高潔
형의장특 외기고한

한번 사람의 몸 잃으면 만겁토록 다시 받기 어렵나니
충고의 말이 귀에 거슬리나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않겠는가.
곧 경계를 뜻는 마음부터 쉬어 머물지 않는 가운데 덕을 길러서 모습과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아상을 버리라는 뜻) 정신을 깨끗하게 길러 시끄러움을 끊어라(물락 놓고 쉬어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한 시끄러울 것도 크달릴 것도 없이 되느니라)

若欲參禪學道 須從方便之門
악욕참선학도 돈초방편지문
心契玄津 疏釋精妙 洗滌深奧 醫醫真源
심계현진 연기정묘 철학심오 계오진원
擲擲先規 親近高友
박문선지 친근선우
此宗 難得其妙 切須仔細用心
차종 가득기묘 절수자세용심
可中 頓悟正因 便是出離斷斷
가중 돈오정인 변은출림절절
此其戒三罪 二十五有
차곡파삼계 이십오유

만약 참선으로 도를 배워서 단숨에 방편문을 뛰어 넘고자 한다면 그대 마음자리가(관념의 벽을 넘어) 현묘한 지리에 결합해서 그 세말하고 오묘한 작용까지 다 닦아(더 나아갈 곳이 없는)

어버이 작별하고 뜻을 굳게 세워 먹물 옷 입은 것은 무엇을 뛰어 넘고자 함이었던가.
아직 저녁으로 헤어려 보아야 할진대 어찌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리오.
아름으로 밭밭의 대를보가 되리라 기억하여 훗날 귀감이 되도록 할지어다.
항상 이와같이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상을 결합하기가 쉽지않나니
언고로 나아감에는 경전의 글을 두루 섭렵하고 담론에서는 옛 가르침을 헤아려 가까이 하며
몸가짐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 배어나고 뜻은 높되 조금하지 않아야 한다.

이름 드러내거나 경계에 물들지 말라
널리 선지식에 묻고 좋은 도반 가까이

원행 요기양봉 삭삭청어미묵
원주 필수택반 시사문어미묵
고운 생이부모 성이자부우
親附善者 如露露中行 雖不濕衣 時時有潤
친부선자 어무로공행 수불습의 시사유은
狎習善者 徒聞知現 染夕造惡
압습약자 장악지견 효석조악
即目交親 沒後造命
죽목교보 몰후침몰

심오한 경지에 들어(마침내) 부처님의 혜명을 깨우쳐야 하나니 널리 선지식에 묻고 좋은 도반을 가까이 할지어다.
발법의 가르침은 그 묘의를 터득하기 어렵나니 모름지기 간절하고 세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중에 문득 근본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이것이 곧 비ଳ세계(번뇌)에서 벗어나는 덕을 차레로 마친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삼계 이십오유를 쳐부수는 것이다(삼천대천 세계를 걸림없이 깨우는 것이다)

먼 길을 갈 때는 좋은 벗에 의지함이 요긴하나니 자주자주 보고 듣는 경계에서 마음을 맑히고 머무를 적에는 반드시 도반을 가려서 때때로 말없는 가운데 법을 듣고자 할 것이니라.
고로 이르되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사귀게 하는 이는 벗이다' 하였다.
좋은 벗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걸어가면 비록 옷이 젖지는 않으나 때마디 옷이 촉촉해지는 것과 같다.
나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나쁜 자견을 길러 아람 저녁으로 악을 짓게 하니 곧 목전에 과보가 나타나고 죽은 뒤엔 악도에 빠지게 된다.

內外諸法 盡寂不實 從心發起
내외제법 진지부실 종심부기
悉是假名 不用將心洗淨
심은假名 不用將心洗淨
실시가명 불용장심주박
但淨其物 物無主人
단정불부물 물기어인
任他法性 廣而 廣而斷煩惱
일타법성 주류 단만락속

一失人身 萬劫不復
일실인신 만겁불복
忠孝節義 豈不銘心功德
충효절의 닐노銘心功德
충언역이 기불명심자재
便得滿心功德 應求道名

안이든 밖이든 모든 법이 다 실답지 않아 마음으로 좇아 일어난 것일뿐 일체 법이 다 거짓이론인 줄 알 것이니 마음에 접어들어 어울리게 하지 말지어다.
다만 뜻을 사물(경계·형상)에 붙이지 아니하면(잡화하지 않으면) 사물이 어찌 사람에게 걸림이 되겠는가.
청정 자성이 흐르는 대로 내맡겨 생각을 끊으려 하지도 말고 잊고자 하지도 말라.

龍眼

“법왕법(法王法)이 여시(如是)니라.” 이 회상(會上)에 대웅이 모인 뜻은 법왕의 법(法王法)이 이와같다”는 뜻에 결합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만사천 법문의 요지가 “법왕법 여시(法王法如是)”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대중들의 신령스런 근본인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지는 번뇌에 파묻혀 사는 대중들의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도 알 수 없으며 대중들의 이 알지 못하는 바를 부처님께서 격외(格外)로 보으신 바, “격외(格外)”라고 하는 것은 다자담전 분반좌(多子塔前 分半坐)하신 소식, 영산회상 거엄화(靈山會上 擧法)하신 소식, 곡시쌍부(擧示雙步)하신 소식입니다.

번뇌망상에 놀아나면
生死를 뒤집어 쓰고
어깨 춤추는 도깨비

이것은 <선가귀감(禪家龜鑑)> 첫머리에 나오는 '여기 한 물건'에 대한 것으로, 모든 중생들이 너무나 모르므로 '한 물건'에 대해 역지로 이름해서 '한 물건'이다. 역지로 이름해서 '부처님'이다. 역지로 이름해서 진리다 합니다. 또는 선가(禪家)에서 심월(心月)이다 하는 등 갖은 명사 다 붙였지만, 이 신령스런 근본 자리에는 그런 명사도 붙지 못하는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럼 모든 중생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두가 아는 생각이 먼저 앞서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내 몸 속에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나니 그것을 일러 '알 식자 마음 심자' '식심(識心)'이라 하며, "아는 척 하는 마음" 그것을 망식(妄識)이라 합니다.

그 식심의 경계와 본심의 경계가 나타나니, 본심(本心)은 부처님 경지의 마음이고, 식심(識心)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부처님 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49년간 설법을 바로 내가 다짐생래에 익힌 입장으로 말미암아 지기를 속이는 버릇이 그렇게 크니까, 그걸 알아듣는 자세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 이 지구상에서 불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는 척 하다가 거꾸러지는 종교입니다.
항상 번뇌망상에 놀아나는 겁니다. 번뇌망상에 놀아나면 그것이 전부 생사요, 생사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겁

정일스님 (보광사 조실)

- 34. 3. 22 서울 생
- 79년 서울 우이동 보광선원 원장(현재)
- 90년 서울 우이동 보광사 조실(현재)
- 조계종 법주사 주지 역임
- 93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현재)



서, 제 중에 겨우저, 흥분해서 아는 체하고 막 풀이 내놓다 보면 제가 저를 속이고 남들을, 듣는 이를 속이게 되니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 버릇을 고치려는 겁니다. 부처님 49년 설법(說法)이 ...
"아는 체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마음은 망령스러운 마음이다" 이겁니다. 망령기가 있다는 말이요, 미쳤다고 소리칩니다.
미친 마음은 1초에 6033번을 뛰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거의 전부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열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말할입니다.
너나할 것들이 들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모여서 산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쉬면 사왕천(四王天)에 올라가고, 조금 쉬면 도리천에 올라가고 조금 쉬면 아미천(阿彌天)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육계(六界) 육천(六天)을 올라가며, 색계(色界) 십이천(十二天)을 올라가며, 무색계(無色界) 4천(四天)을 올라가고, 그래서 수다원(須陀洹)·사다함(斯陀含) 등의 성문(證門) 4계를 올라가는데 수다원은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들어간 경계로 무색계천 경계에도 안되는 색계 십이천경계 중에 색구경천(色究竟天) 근처에 간 수행력이지만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수다원에 들른 다시는 더 떨어 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수다원과를 딱 정해가지고 그후 정진해서 부처님이 되고 만다 이말입니다. 타락(墮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취(成就)라고 하는 겁니다.
상인류(商人類)에 든다고 해서 성류라고 한다 이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현대불교 생활광고

관음손

이런이 프로그램을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행운의 벽조목 안내

일타스님의 육상 범은 테이프

법화경 강좌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연꽃방

진여월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연꽃잉어화 전문화실

노고당

주문객

미래 케이블 TV

운주사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안내

회원모집: 수시접수